

전통수의침구학

경락의 소개와 수태음폐경 手太陰肺經

강 무 속

동물재중원 금손이동물병원 원장
수의외과학 석사
camus22@hanmail.net



1. 경락과 장부

전통수의학 이론의 근간은 장부학설과 경락학설이다. 경락은 체내 기혈 운행의 통로이며 장부와 기관 등 전신을 연결시키는 유기적인 계통으로서, 경락학설은 경락계통의 생리기능, 병리변화 및 장부와와의 상호관계를 연구하는 학설이다. 많은 부분의 전통수의학적 진단과 치료방법은 경락을 기초로 하여 실행되었기 때문에 경락학설은 진단과 치료에 대하여 매우 중요하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한 경락학설의 이해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동안 경락의 작용기전을 파악하기 위해 신경학설, 혈액순환설, 피부전기저항설, 내분비설 등의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경락은 그 실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침자극이 장부와 뇌, 자율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와 다양한 증례에 따른 경락경혈에 대한 물리적 자극이 전신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임상적인 의의가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장기를 뜻하는 장부臟腑는 장상론藏象論 또는 장부학설臟腑學說이라는 이론적 체계로 운용되는데, 이러한 이론적 체계속의 장부는 현대의학의 장기라는 개념과는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구분되어져 설명되어야 한다. 즉,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심장의 기능과 전통수의학에서 말하는 심장의 기능은 비슷한 점이 60%정도 되지만 전혀 동떨어진 기능이 40%정도는 된다. 현대의학에서 보면 이미 과학적으로 많은 것이 밝혀진 상황에서 전혀 새로운 기능이 있다는 말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전통수의학에서는 장부를 해부학적 관점에서 보이는 것만 장기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당시 의학수준에서 파악된 생리기능적인 면

까지 추론의 형식으로 장기의 기능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그 기능에 대한 충분한 논리를 가지고 있으며 환자의 병리상태에 도입시 충분히 질환을 설명할 수 있다.

경락과 장부는 밀접한 생리병리적 연관성을 가져서 경락과 장부가 처음부터 유기적인 관계로 인식되어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두 가지 개념은 서로 다른 부분에서 출발하게 된다. 경락학설은 음양을 각각 세 가지로 분류한 삼음삼양 이론을 기초로 삼고 있고, 장부학설은 오행학설을 기초로 삼고 있다. 경락은 경락대로, 장부는 장부대로 논의가 진행되어 오며 이론적인 발전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와서 융합되어 유기적인 관계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2. 경락의 명칭

경락에는 각각 여섯 개의 음경맥陰經脈과 양경맥陽經脈이 있는데, 음경맥은 장臟과 연결되고, 양경맥은 부腑와 연결된다. 장과 부를 음양 기준으로 분류하였을 때, 저장하는 기능이 강한 장은 음으로, 활동성이 강한 부는 음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이다. 십이경맥十二經脈의 명칭은 수족手足, 음양陰陽, 장부臟腑가 결합되어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수족은 횡격막을 기준으로 삼아 장부의 상하 위치를 나타내고, 음양을 각각 세 등급으로 분류한 삼음삼양은 경락의 속성을 의미하며, 장부는 경락과 연결되어 있는 장부를 말한다.

십이경맥의 명칭에서 장과 연결되는 음경맥에는 궐음厥陰, 소음少陰, 태음太陰이 붙고, 부와 연결되는 양경맥에는 소양少陽, 양명陽明, 태양太陽이 붙는데 이것은 경맥의 성질과 작용을 음양의 정도에 따라서 삼음三陰과 삼양三陽으로 구분한 것이다.

예를 들면 수태음폐경(手太陰肺經)은 수(手)+태음(太陰)+폐경(肺經)의 결합인데, 수는 경맥이 손, 팔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고, 태음은 음이면서 팔의 안쪽임을 나타내고, 폐경은 경맥이 폐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경락의 흐름을 '유주(流注)'라고 하는데, 12경맥의 유주는 흉부의 '중부(中府)'라는 수태음폐경의 혈자리부터 시작된다. 수태음폐경, 수양명대장경, 족양명위경, 족태음비경, 수소음심경, 수태양소장경, 족태양방광경, 족소음신경, 수궤음심포경, 수소양삼초경, 족소양담경, 족궤음간경의 순으로 12경락이 유주하고 다시 수태음폐경으로 들어간다. 각각의 경맥에는 흐름이 시작하는 곳과 끝나는 곳이 있어서, 실제 침치료를 할 때 경맥의 흐름을 거슬러 침을 찌르는 법과 경맥의 흐름에 따라 찌르는 법을 운용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이유는 경맥에 흐르는 기운을 약화시키거나 강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사법(補瀉法)'이라고 한다.

3. 폐의 기능과 수태음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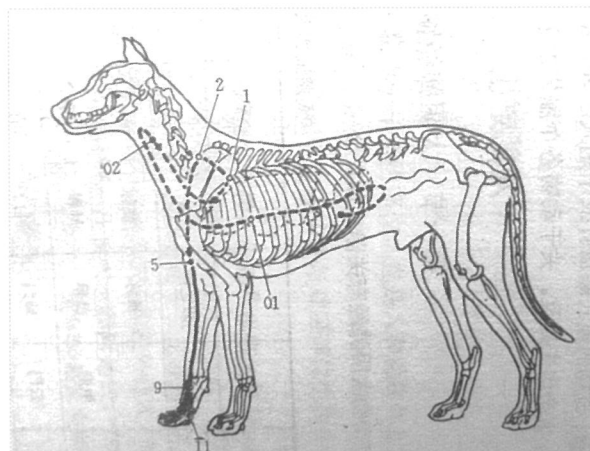
폐는 횡격막위의 가슴부위에 위치하여 기관지와 코를 통해 외부와 연결되며 공기를 호흡(呼吸)한다. 심장에 돌아온 정맥 피를 폐동맥을 통해서 폐에 보내면 폐는 그 혈액에서 탄산을 제거하고 다시 산소를 주어서 신선한 피가 되게 한 다음 폐정맥을 통해서 심장에 보내서 다시 온몸을 돌게 한다.

3.1 폐의 기능

주요 기능으로 네 가지가 있는데,

① 폐주기사호(肺主氣司呼吸) : 폐는 기를 주관하고 호흡을 다스린다는 뜻으로, 호흡을 주관하여 체내의 기체를 교환하는 장소가 되어 외부의 맑은 기를 받아들이고 탁기를 배출한다. 또한 들숨과 날숨 형식의 호흡운동을 통하여 기를 전신으로 보내게 된다.

② 통조수도(通調水道) : 직역하면 수도(체액의 이동 통로)를 조절한다는 기능으로, 폐기의 상하 운동기능에 의해 체내의 수액을 운반하고 배출을 조절하는 기능을 말한다.



개의 수태음폐경 (사진출처 : 비교침구학, 중국농업출판사, 1997)

③ 폐주치절(肺主治節) : '치절'은 관리 또는 조절의 의미로, 심신을 보좌하여 기혈운행을 비롯한 전반적인 조절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④ 폐조백맥(肺朝百脈) : '조'는 모인다는 의미로, 폐가 흡입한 맑고 깨끗한 청기를 전신으로 운반되게 한다는 의미이다.

폐에 병변이 있어 호흡을 주관하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가장 먼저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은 해수(咳嗽)=(기침), 기천(氣喘)=(숨을 헐떡임), 호흡불안 등의 증상이다.

기는 생명활동의 근본 요소로써 보통 '원기'라고 하고 '정기'라고도 하는데, 음식물과 외부의 청기가 주된 원료가 된다. 만약 폐가 외부의 청기를 흡입하지 못하면, 기가 부족해지고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작용을 발휘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기의 생성과 운반은 폐의 기능으로, 임상에서 쉽게 피로하고, 체력이 떨어지고, 호흡이 약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폐 기운이 약해진 것으로 간주한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폐 기운이 약해질 수 있는데, 선천적으로 폐 기능이 약한 경우, 기저질환으로 인한 2차적인 기능저하, 감기와 같은 상기도 감염과 호흡기 질환 등등이 모두 포함되며, 이러한 다양한 폐 질환으로 인한 폐기능의 문란에 수태음폐경의 경혈이 응용되어지게 된다.

기의 생성원료중의 하나인 외부의 공기를 받아들이고, 규칙적인 호흡운동을 하기에 기와 호흡을 주관하며 체액의 흐름을 조절하고, 심신을 보좌하여 혈액순행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

3.2 수태음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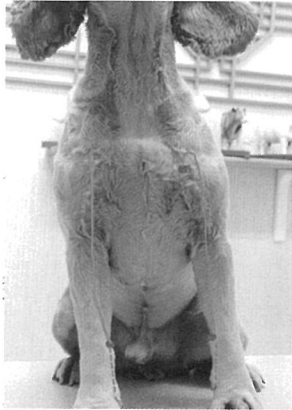
사람의 수태음폐경은 11개의 혈자리를 가지고 있고, 소/말/개/고양이는 7개, 돼지/양/낙타는 6개로 알려져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현대에 와서는 해부학적 구조를 비교하여 동



사람의 수태음폐경

물에서도 사람처럼 11개의 혈자리를 응용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실제 소동물임상에서 자주 쓰이는 혈자리만 소개하기로 한다.



사람의 수태음폐경과 동물의 수태음폐경은 모두 복부에서 경락이 시작되서 가슴을 지나 겨드랑이와 팔을 따라 손과 앞발가락에서 끝나지만, 해부학적 구조의 차이로 경락의 흐름에도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

중부 LU-1		한자풀이 : 중심 저택, 폐의 기가 모이는 혈 (모혈)	
혈자리 위치		효능	
	첫 번째 늑간에서 쇄골힘줄 약간 뒤쪽의 상완머리근의 배쪽 테두리 (이 혈은 안쪽 중심부 방향으로 깊숙이 찔렀을시 기흉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자리이다. 바깥쪽으로 찔러야 한다.)	면역조절, 폐의 질환(폐에 열이 있을 때), 기침, 호흡이상, 어깨와 가슴의 국소적인 문제시, 주로 율혈과 정체 양상을 띠는 증상의 급성기에 쓰인다. 폐기의 순환을 조절하고 폐기가 내려가는 것을 촉진시키며, 폐에서 열과 담열을 방출시킨다.	
척택 LU-5		한자풀이 : 물이 모이는 곳, 폐의 열을 제거, 폐에서 담을 제거, 방광의 수분조절에 도움을 줌	
혈자리 위치		효능	
	요골쪽앞발목뼈근 내측과 상완두갈래근 외측의 다리굽이의 요항부 (팔꿈치 안쪽관절의 힘줄의 외측)	폐 실증, 폐열, 열, 기침, 천식, 앞다리 굽이의 통증, 배뇨이상	
열결 LU-7		한자풀이 : 경맥과 기맥의 분열이 일어나는 곳, 육종혈, 낙혈(연결혈), 팔맥교회혈(LU-6), 외풍을 없앴, 위기를 보호해 주고, 폐기의 운동을 도움, 수분조절	
혈자리 위치		효능	
	앞다리의 내측면, 앞발목 근위 약 2 cm의 골쪽앞발목뼈근 힘줄의 내측 근위부	호흡기계 질병, 앞다리 통증, 경부강직, 경추척추증, 상부호흡기염증, 소변이상, 변비, 수증, 안면신경마비	